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5일)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7월 6일 상월선원 신축불사 착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新포교거점 상월선원, '불사 START'

## 서울 봉은사, 7월 6일 위례 현장서 착공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홉 스님의 천막결사 이후 불교중흥과 미래포교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 대작불사의 막이 올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6일 위례 상월선원 불사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00명 이내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종단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불사총도감 호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김상호 하남시장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도 참여했다.

상월선원은 2019년 겨울 아홉 스님들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며 불교 중흥을 염원한 곳이기에 이날 착공 의미는 남달랐다.

착공식 증명으로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지식들이 당시 부처님께 고한 서원을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라며 "깨달음을 향한 굳은 결기가 불교를 넘어 국가와 세계 속에 널리 퍼지는 전진기지 출발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1년 후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필두로 상월선원의 단계적 불사가 진행되면 종단의 본래 면목인 '참선수행' 풍토 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위례 상월선원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3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3000여 평 대지 면적을 자랑한다. 상월선원의 전신은 호국 사자사로 1988년 특수전사령부 내 군법당으로 건립된 이후 30여년 넘게 군포교 터전으로 자리했다. 이후 특전사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이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조계종이 도심사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2011년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신도시포교종책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주택공사와 위례사업본부 등 의견을 검토해 5년간 협의를 거쳐 2014년 7월 249억 원에 부지인수를 계약, 2019년 7월 매입금을 최종 지급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2019년 11월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하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입재해 천막 속에서 동안거 정진을 시작했고 2019년 12월 봉은사가 위례 상월선원 불사 담당사찰로 확정, 불사가 본격화됐다.

조계종과 봉은사 측은 문화시설 등도 함께 지으려 했으나 지역 반발 등으로 여론수렴 후 연면적 206평 설계를 정해 대웅전을 비롯한 축소된 계획을 확정했다.

1차 불사 예산은 52억 7000만 원으로 공사는 2022년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1차 불사에서는 대웅전 70평, 종무소와 요사채, 공양간 등 부대시설이 136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올해 1월 하남시가 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을 승인했으며, 5월 착공 승인하여 현재 기초터다지기 등이 진행된 상태다.

상월선원은 건립 이후 지역포교와 수행 중심도량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문화시설 등도 건립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월선원 주지를 맡아 불사를 진행하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들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남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봉은사와 상월선원의 역할을 올곧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국사자사부터 상월선원까지**

| | |
|---|---|
| 1988년 1월 | 특전사령부 내 호국사자사 건립 |
| 2005년 |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따른 특전사 이전 발표 |
| 2011년 | 특전사령부 경기도 이천 이전 시작 |
| 2011년 1월 | 조계종 신도시포교계획 발표 |
| 2014년 7월 | 조계종 나공사로부터 부지 매입 계약 체결 |
| 2019년 7월 | 조계종 매입금 최종 지급, 부지 소유권 취득 |
| 2019년 11월 | 아홉 스님 상월선원 천막결사 입재 |
| 2019년 12월 | 봉은사 불사 담당사찰 확정 |
| 2020년 10월 | 불사 시행방침 확정 |
| 2021년 1월 | 하남시 사업계획 승인 |
| 2021년 5월 | 상월선원 기반공사 시작 |
| 2021년 7월 | 조계종 상월선원 착공식 개최 |

**대웅전과 요사채 등 1차불사**
**종단 1백여대표 모여서 축원**
**아홉 스님 정진 의미 되새겨**

# 나눔의집 상임이사 직대 혜일스님 선출

## 6일 임시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직무대행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나눔의집 운영논란이 불거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에서, 새 상임이사 선출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7월 5일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임이사 직무대행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일 스님은 지난 6월 21일 사임한 박정화 삼육재단 삼육노인요양원장을 대신해, 6월 24일 광주시 추천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된 바 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혜일 스님이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나눔의집 정상화에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혜일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비롯해 다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소임을 맡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서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성남 지역 사찰 주지로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불교계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상화 새 국면에 '주목'**
**임시이사회 한계 명확해**
**실질적 타개책 마련해야**

일각에선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나눔의집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데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나눔의집 운영논란 사태 당시 내부제보를 했던 일부 직원들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진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내부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바닥으로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지 못해, 후원금 등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1월 지자체 추천으로 임시이사들이 선임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됐지만, 업무상 한계가 뚜렷한 까닭에 변화는 미진하다는 평가다. 이에 조속히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이사 직무대행 혜일 스님은 "임시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지만 정식이사회가 가동되기 전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다만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불편함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혜일 스님은 이사회 참석 전 교육관 3층 법당을 참배하고 이옥선 할머니와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보은 법주사 인근 마을 출신으로, 혜일 스님에게 법주사 참배를 요청한 바 있다. 혜일 스님은 할머니에게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초대해 주셨다"며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될 때 꼭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